

코로나 생활고 카드로 막았다

광주, 지난해 1인당 사용액 1840만원 ... 광역시 중 최고

연체액 부산 이어 두번째 높아

코로나19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1인당 카드 사용액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데다, 카드 연체액도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국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광주·전남을 포함한 4개 시·도는 오히려 카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카드 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 소비 변화'에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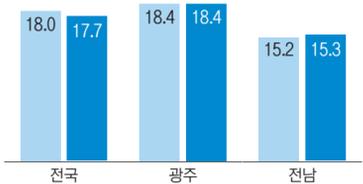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1인당 연간 카드 사용액(체크카드 포함)은 1840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반면, 전국 평균 1인당 사용액은 180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1.5% 감소했다. 광주 사용액은 세종(2190만원)과 서울(1930만원)을 제외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광주 연간 사용액은 부산(1660만원)보다 180만원 많았고,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로 꼽히는 대전(1780만원)과도 60만원 차이가 났다.

지난해 서울(-2.8%)과 제주(-2.7%)를 포함한 11개 시·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광주·전남 등 4개 지역은 오히려 카드 사용액이 늘었다. 전북 증가율이 0.6%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52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0.4% 가장 늘어나면서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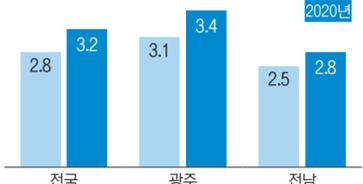
코로나19 경기 불안으로 인한 생활고와 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카드 연체액(12월 말 기준)은 전년보다 각각 9.6%, 13.5% 증가했다. 특히 광주 연체액은 31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증가, 부산(350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연체액이 많았다. 전남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연체액이 늘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경제통계청 사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수도권·대구·경북과 제주 등 관

1인당 카드 사용액 (단위:백만원)



1인당 카드 연체액 (단위:백만원)



(사용액은 연간, 연체액은 12월 말 기준)

광지를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했다"며 "국내 코로나19 발생이 개인 소비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카드 지출을 업종별로 보면 광주·전남 지역은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식료품 소비는 늘어난 반면, 음식점 이용은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카드매출은 광주 4조7295억원·전남 4조1870억원 등 8조91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322억원)에 비해 1157억원(-1.3%) 감소했다.

올 상반기 일반 식료품 카드지출액은 광주 1726억원·전남 2180억원 등 3906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상반기(3621억원)보다 15.7%(53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 음식점 카드매출은 1조2788억원(광주 5608억원·전남 7180억원)으로, 1년 전(1조4395억원)보다 1607억원(-11.2%) 줄면서 코로나19 타격을 실감케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바닥이 안 보여” ... 코스피 3000선 붕괴

인플레이션 불안, 중국恒大(恒大) 그룹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5일 코스피가 반년 만에 3000선 아래로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01포인트(1.89%) 내린 2962.17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10일의 2958.12 이후 7개월 만의 최저치다. 3000선 하회는 3월24일의 2996.35 이후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인 621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60억원과 234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27.83포인트(2.83%) 급락한 955.37에 종료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91억원과 1374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23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미국 부채한도 불확실성 확대,恒大 그룹 주식 거래 중단 등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졌다. 악재가 줄을 잇는 분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당분간 불안한 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대전환의 서막'



2021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대전환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개막했다. 시민들이 광장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캔버스'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오는 11일까지 5·18민주광장과 ACC 복합5관 등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 세금으로 골프장 업주 배 불린다”

골프장 배짱영입... 일부 대중제 요금 회원제보다 비싸고 음식비 폭리 전남도의회,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건의안 채택 ... 국회서도 성토

코로나 19 특수를 누리며 '폭리-배짱 영입'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해 가격 통제 장치 도입 등 정부 개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유독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지난 2019년보다 9.3% 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호실적에도 골프장 횡포는 도를 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 가운데 일부는 요금에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되레 비싸고, 대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등

서비스 질이 떨어져 '세금으로 골프장 업주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용객에게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골퍼는 "코로나 때문에 라커룸과 사우나 등 시설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했다.

골프장 배짱영입 비판과 정부 개입 촉구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대중골프장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당 대중골프장들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골프 한 게임을 치려면 인당 50만원에 가까운 비용

이 드는 상황 때문에 골프가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골퍼장은) 시중가 1000원대인 마걸리 1병을 1만2000원에, 떡볶이 등 소량 간식을 3만6000원에 판매하면서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심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주최한 골프장 관련 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 연구원은 "골프장은 공급자의 독점성이 강한 업종으로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며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같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장세일 전남도의원 역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도입 등 정부 차원의 통제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보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